

런웨이에서 본 뷰티 컬러 트렌드 '피치 퍼즈'

색채 연구소 팬톤(Pantone)은 매년 패션 위크 런웨이, 인테리어 디자인, 심리학 등을 분석해 한 해의 트렌드를 이끌 '올해의 컬러'를 선정한다.



팬톤이 정한 '2024 올해의 컬러'는 바로 부드러운 복숭아색, 피치 퍼즈(Peach Fuzz, Pantone 13-1023). 피치 퍼즈는 2024 S/S 런웨이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다.

'싱글플러스' (m.thesingle.co.kr)가 올해의 컬러로 채워진 모델들의 입술을 소개했다.

■ 날개 단 아이 메이크업



눈꼬리를 날렵하게 뺀 캐츠 아이에서 나아가 이제는 날개처럼 길게 뻗은 윙 아이 룩이 등장했다. 과감하고 예지 있는 라인을 잡기 위해 틱이 얇은 블랙 리퀴드 아이 라이너를 사용해 눈 시작점보다 앞에 라인을 형성해 눈

꼬리와 눈두덩까지 길게 이어 연출한 것이 특징.

블랙 윙 아이보다 산뜻한 룩을 완성하고 싶다면 컬러 아이섀도를 활용해 눈썹 라인 영역까지 스며들듯 확실하게 포인트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 평화를 속삭이는 입술



새해 시작 전,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 피치 퍼즈는 따뜻하면서도 현대적인 우아함이 느껴지는 컬러이다. 피치 퍼즈는 핑크와 오렌지 사이의 포근한 복숭아빛으로 공존과 치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배려와 나눔 그리고 공동체와 협력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팬톤이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우리를 보살피는 색상이 필요하다"라며 "친밀감과 연결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갈망을 반영하는 색상을 찾기 위해 따뜻함과 현대적인 우아함이 빛나는 색상을 선택했다.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촉각적인 포용을 제공하며, 젊음과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색상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피치 퍼즈는 아늑하고 따뜻한 컬러로 혼란스러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공감과 연민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색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번 시즌 런웨이에 선 모델들의 입술에 채워진 컬러처럼 다정하고, 온화하게.

사진=팬톤/싱글플러스

■ 피부 상식

알아두면 도움 되는 피부 상식



■ 거무스름해진 피부는 녹차물로 행군다

피부가 평소보다 검어져 있을 때는 산성으로 기울었다는 증거다.

세안 뒤 헹굴 때 식힌 녹차물로 패딩한다. 녹차에 포함되어 있는 엽록소가 피부에 흡수되어 피부가 중성으로 되기 때문이다.

피부는 산성이 되면 검어지고 알카리성이 되면 희어진다.

■ 피로해진 피부에는 검정콩과 레몬을 삶아서 먹는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검정콩은 피부에도 좋고 모발에도 좋다.

설탕이나 간장을 넣지 않고 콩을 넣어 맛을 낸다. 레몬만으로도 콩에 있는 달콤한 맛이 익혀져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 염분 과잉은 피부를 거칠게 한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염분 과잉이다. 땀은 피부를 거칠게 할 뿐만 아니라 화장이 잘 안 먹히는 원인도 된다.

화장이 잘 안 먹히는 것을 방지하려면 피부에 화장수만을 쓰도록 한다. 화장수는 약산성인 것을 쓰고 목욕도 날마다 하여 땀을 내서 염분을 흘려버려야 한다. 목욕 후에는 분을 발라준다.

다한증(多汗症)인 사람은 소금기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차 같은 것도 될 수 있는데 피하는 것이 좋다.



무료 3D 디자인 • 무료 견적 • 20년 경력



CUCKOO 문의 환영

신년 이벤트
부엌이나 화장실 리모델링 계약 하시는 분들에게 최고급 쿠쿠 비데를 설치해 드립니다.
단, 계약금액 만불 이상

CUCKOO



캐비닛 / 카운터 탑 / 마루 / 타일 / 욕조 / 샤워 도어 / 창문

CALI KITCHEN & BATH
HOME RENOVATION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링 전문업체
캘리 키친 앤 베쓰가
라팔마에 쇼룸을 오픈했습니다.
5438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3
714-206-7366
www.calikitchenbath.com
calikitchenbath@gmail.com
Licensed, Bonded and Insured St. Lic. #1073686